

국산약재 품질경쟁력 제고 시급

청정약재 생산농법 개발로 차별화 필요성도

한약재 종주국이라 할만한 중국이 지난 11월11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 세계무역기구 체제에 편입되면서 국내 생약농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소비량의 많은 양을 이미 중국산 약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한약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또, 국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산 약재가 전면 수입개방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생약농업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한약재의 경우 고율관세 부과 품목인 건강, 신약, 의이인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8%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에 추가적인 관세인하 등이 없더라도, 국내 한약재수급조절품목의 개방바람을 타고 국산 시세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저가의 중국산 한약재가 물밀 듯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내 한약재 시장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같은 우려와 함께 국내 한약재 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산 약재의 품질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과 체계적인 유통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품질고급화를 통한 외국인

과의 차별화와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청정약재 생산을 위한 농법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약용작물과 21세기 생명산업’이란 주제로 지난달 21일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열린 <2001년 농업과학기술 심포지엄>에서 김석동 작물시험장장은 “지금까지는 수량성, 생력화 위주의 표준 재배 기술이 연구되었다면 앞으로는 금비위주의 농법에서 탈피하고 해당작물 고유의 약성이

재현될 수 있도록 자연농법, 방임농업 쪽으로 방향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박사(지식정보센터)는 “대부분의 한약재가 중국산과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지역의 생산자들도 나름대로 품목과 품종, 그리고 품질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여 차별적으로 유통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한약 제조 유통관리 대폭 강화

복지부, GAP제도 도입방침 최근 밝혀

한약 제조·유통 및 한약재 재배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GAP(우수한약재 재배관리 규정), GMP(우수한약 제조관리기준), GSP(우수한약 유통관리기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오는 2004년까지 의약품으로 공인돼 있는 한약514종을 모두 품질검사 및 제조관리 대상(현재 69종)으로 흡수해 한약 규격제조 관행을 확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한약재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

전청, 시·도·경찰 등과 함께 한약 유통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되는 한약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사용불가 한약재 사용 건강원 적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식품제조에 사용할수 없는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한 건강원 4곳을 적발했다.

대구청에 따르면 경북상주 지역에 추출가공식품 제조판매업소 9곳을 점검한 결과 P

안면도 꽃 박람회 ‘한방진료소’ 운영

내년 4월 안면도 꽃지해 수육장 일원에서 열리는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에 ‘한방진료소’가 운영된다. 박람회 조직위는 22일 꽃 박람회가 단순히 꽃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꽃이 실생활에 널리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방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꽃 박람회 기간(내년 4월 26일-5월19일) 박람회장에 설치되는 한방진료소에는 우리 고유의 한의학을 소개하는 홍보코너가 마련되며 꽃과 야생식물에서 추출한 각종 한약재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전시·운영하는 한편 한의사가 무료로 진료해 주는 시간도 마련된

다. 더욱이 꽃 박람회 ‘한방진료소’는 각종 꽃과 향기를 이용한 갖가지 제품과 건강치료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어서 관광객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이며 외국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전통 한방을 선보여 꽃을 매개로 한 한방의 국제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꽃 박람회 측은 이 한방진료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대전 B한의원을 공식한의원으로 지정했다. 꽃 박람회 관계자는 “안면도 꽃 박람회를 꽃과 건강을 접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한방진료소가 큰 인기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원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이들 업소는 부작용 등의 우려로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목통, 방풍, 살구씨 등의 한약재를 배즙, 호박즙 등의 제품 제조에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농지자금 금리인하방침 현행 5~6.5%서 3%선으로

현행 5~6.5% 수준에서 농가에 지원되던 농지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금리가 3%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안중운(安鍾云) 농림부 차관보는 23일 민주당 한광옥(韓光玉) 대표가 용인 추곡수매현장을 방문, 농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점을 감안, 8% 수준이었던 16개 정책자금의 금리를 5~5.5%로 낮춘

데 이어 현재 5~6.5% 수준인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상의중’이라고 밝혔다.

자연공원내 주민 임산물채취 허용

자연공원내 주민들의 임산물 채취행위가 신고없이도 가능하도록 자연공원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공원별로 구체적인 허용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18개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등 73개 자연공원의 실정을 고려해 약초나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 가능 지역 등 허용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생계를 위한 지역민들의 임산물 채취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약초채취 관광 등 외지인의 무분별한 채취행위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명연, 상해의약공업연과 협력각서

중풍 심장병등 성인병 관련 신약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중국 최대 규모의 의약개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상해의약공업연구원(원장 황성룡)과 공동으로 중풍, 심장병 등 성인병 관련 신약개발을 추진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 달 26일 중국을 방문 중인 북성해 원장이 중국 상해 의약공업연구원을 방문, 첨단 신약개발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구 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

생명연은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중국의 풍부한 생물자원 및 한약재료를 활용해 중풍, 심장병 등 성인병 관련 신약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1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57년에 설립된 상해의약공업연구원은 국가의 약관리국에 소속돼 있으며 지금까지 총 500여개 연구성과 중 320여개 성과에 대해 과학기술표창을 수상하는 등 중국 내 대표적인 신약개발 연구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릉과학단지 '건강산업단지'로 변경

강원도 강릉시가 추진하는 강릉과학산업단지가 동아시아 천연물 건강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돼 추진된다.

강릉시는 23일 낮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릉과학단지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갖고 대전동과 사천면 방동리 일대 170만㎡에 조성되는 과학산업단지를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약재와 수산물 등 각종 천연물(天然物)을 테마로 한 건강산업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천연물 기능을 최대화 확보하기 위해 건강산업용지를 26만4천㎡, 산업용지 21만 3천㎡ 등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곳에는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각종 천연물을 활용한 건강 체험단지와 허브가든, 한약재 마트, 대체의약병원, 스포츠컴플렉스, 어린이 지원 및 애완동물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약재와 수산물 등 각종 천연물을 이용한 벤처와 마트, 전시장, 전자상거래, 가공 식품제조, 건강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05년까지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 북부지역에 한방생명자원연구단지가 조성된다.

한방연구단지조성계획 경북도, 내년부터 착수

경북도는 최근 내년부터 2006년까지 북부지역 66만여㎡에 한방생명자원연구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한방단지는 한약의 재배·연구·가공·생산 등

은 물론 관광산업으로까지 연계하는 테마단지로 조성된다. 이 단지에는 전통 약초마을과 한방생명연구센터, 한방바이오벤처단지 등이 들어선다.

도가 한방단지 조성지를 북부지역으로 정한 것은 이곳이 전국 최대의 한약재 생산지인 데다 대구·영천시 약령시시장의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북부지역의 봉화군 고령지약초, 영주시 풍기읍 인삼, 의성군 약초시험장과 경산대 및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한의대와 연계해 한방단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5,000만원을 들여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선정을 마친 뒤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한방단지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